

# 김창환 교수의 논어 강좌-

## 박재학 교수의 논어 노트

김창환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를 졸업하였다.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현, 한국고전번역원) 국역연수원에서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 등을 공부 한 뒤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고전문학을 전공하였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중국어교사 특별양성과정에서 초빙교수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문학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중문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도연명의 사상과 문학”, “중국의 명문장 감상” “중국어 유래 어휘사전”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장자”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논어를 통해 살핀 공자의 교수법” 등이 있다.

김창환 박사와는 30년 지기의 친구로 평소 그의 학문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에게로부터 周易을 배우고자 하였다. 김박사는 나의 생각이 엽등 [躒等]이라며 논어부터 배울 것을 제안하였다. 논어를 배우면서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많이 정리 되고 있다. 올바른 길 즉 道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 김창환 박사의 강의를 기록하여 노트를 만들고자 하였다. 앞으로 김창환 박사의 논어 해설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

## 學而 第一

###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1. 좋은 선생으로부터 성현의 도를 배우며 또 끊임없이 그 배운 것을 복습하여 숙달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도를 알지 못하였던 자가 지혜가 열리며 도가 보일 것이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2. 學 (배운다)은 흉내 낸다는 效의 의미이다. 흉내 낸다는 效의 뜻으로 다음과 같은 말들도 있다. 즉, 東施效顰 (동시효빈): <<장자>>에 나온다. 동시가 서시의 눈썹을 찌푸림을 흉내 낸다는 의미로 자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남을 흉내 낸다는 것이다. 못나라 왕 부차의 애첩인 서시가 배가 아파 눈썹을 찡그린다는 西施顰目(서시빈목)과 같은 의미
3. 時: 항상 이라는 의미와 때때로라는 의미가 있다.
4. 習: 羽 (날개) + 白 (흰빛, 햇빛): 낮에 해가 떠있는 곳에서 날개 짓 하다. 멈추면 떨어진다. 날개 짓을 계속하듯이 익혀 내 것이 되게 한다는 의미이다
5. 說: 말سم하다(설), 유세하다(세), 기쁘다 (열, 悅)
6. 亦: 역시
7. 배운다는 것은 목표로서 德을 닦는 修身 그리고 齊家, 그 결과로서 治國(治人) 平天下를 이루는 과정이다.

###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1. 이렇게 자기의 학문을 성취하여 도를 알게 되면, 자기와 같이 도에 뜻을 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은 물론이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게 된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되어 모두 도를 구하게 된다. 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2. 有: 어떤
3. 朋: 친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4. 自: --로 부터라는 뜻.
5. 自遠方來: 먼 곳으로부터 온다.

### 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

1. 학문은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의 학문이 성취된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 주지 않아도 화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泰然自若하게 된다. 이처럼 스스로 도를 즐기며 외부의 영향에 마음을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상적인 인격자인 군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人: 사람 또는 남
3. 목표가 治人이 아니고 修己이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
4. 爲己之學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학문) 과 爲人之學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한 학문)을 생각 해보아야 한다.
5. 論語의 1篇 1章 이 改宗明義 (전체요지를 열어서 뜻을 밝힌다) 라고 생각 할 수 있다.

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1. 사람됨됨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에게 공손하면서 윗사람을 거스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고, 윗사람을 거스르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기게 된다. 효도와 공손함은 아마도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2. 이 말은 孝悌를 행 함으로서 仁을 이룰 것이라는 의미다. 효제는 행동을 말함이고 仁은 義禮智信과 같은 본성을 말하는 것이니 효제가 인의 근본이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爲人: 사람 됨됨이
4. 孝(父)弟(兄):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에게 공손히 한다.
5. 者:
  - A. 수식: 仁者 어진 사람, 前者 앞 사람, 앞의 것
  - B. 동격: 論語者 논어라는 것은, 孝弟也者 효제라는 것은
  - C. 조사: 近者 근래에, 前者 전에
6. 其 - 與: 아마도 -- 일 것이다: 겸양의 뜻을 지니고 있음, 추측의 뜻은 아니다.
7. 爲仁之本이라 할 수 있다.

###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

1. 말을 잘하고 안색을 좋게 꾸미는 사람들에게는 어진이가 드물다.
2. 巧 잘하다 (동사)
3. 令 좋게하다, 善의 의미, 令夫人 남의 부인을 높여부름, 令息, 令

愛 (남의 자녀를 높게 부름)

#### 4. 色 안색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1. 증자가 말하기를, 나는 매일 세 가지로 내 몸을 살피니, 첫째는 다른 사람 (남) 을 위하여 일을 계획하는데 마음을 다 하지 않았는가, 둘째로, 친구 (사회인)와 사귀에 신뢰가 없었는지, 셋째로, 전수받은 것을 연습하지 않았는가 이다.
2. 傳習錄 傳不習乎
3. 子路有聞 未之能行 惟恐有聞 자로는 들은 것이 있고, 그것을 잘 행하지 못하면, 또 들을까 봐 두려워하였다. 能 (할 수 있다, 잘)
4. 이것은 爲學之本을 말 한 것이다.
5. 乎, 哉등은 뜻이 없이 의문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어조사. 快哉: 유쾌하도다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1. 공자 말씀하기를 제후국을 이끄는데, 일을 공경하면서 하고 믿음을 갖게 하며 물건을 절약하면서 사용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해야 하고, 백성에게 부역과 군사 등의 부역을 시킬 때는 때를 가려가면서 해야 한다고 하였다.
2. 爲國之本을 말 한 것이다.
3. 千乘之國: 마차 천대를 가진 나라 즉 諸侯國을 의미한다.

4. 道는 導 (인도하다의 뜻이다) 導火
5. 恭 (외적인 언행을 조심이 하는 것), 敬 (내적인 마음을 조심이 하는 것)
6. 節: 대나무의 마디를 뜻한다. 마디는 대나무를 반듯하게 해준다. 禮節 (예는 절이다. 예는 매듭짓는 것이다), 喪禮 (상으로서 예의 매듭을 저준다. 예를 들면 3일장을 하여 예를 매듭짓는다.) 節約(선을 정하여 묶어둔다는 의미)
7. 使民以時: 부역과 군사 일에서 백성을 농한기의 때에 맞추어 부린다. 司空: 농한기의 일을 맡아서 한 사람으로 건설부 장관 격이다.

子曰 弟子 入則孝 出則悌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1. 이말씀은 爲學之本의 보충설명이다
2. 弟子는 젊은이, 弟는 공손하다, 汎 두루 仁은 仁人을 말한다.
3. 學文은 글을 배우는 것이요 學問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닦는 것을 말한다. 즉 실천 학문을 말한다.
4. 汎愛衆하되 而親仁이니: 두루 사람들을 사랑하되 仁者를 가까이 하라. 孟子에 親親仁民愛物 (양친을 가까이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한다) 이라는 말이 있다 사랑에도 차등이 있다는 의미로 (差等愛) 墨子の 兼愛(겸애 自身, 自家, 自國을 사랑하듯이 他人, 他家, 他國도 사랑하라)정신과 다르다.
5. 金科玉條 (황금과 같은 규정과 구슬과 같은 조항)라 할 수 있다.
6. 立於禮 예를 통하여 사회가 반듯하게 선다

7. 문법) 未之有也: 부정사 未가 앞에 나오면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도치된다. 有之는 그런 사람이 있다.
8.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는 효도를 하고 밖에 나가서는 웃어른에 공손해야 하며, 일을 할 때는 법도를 벗어나서 함부로 하지 말고 믿게 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특히 인자를 가까이 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다면 글을 배워야 한다.

子夏曰 賢賢易色 事父母 能竭其力 事君 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

1. 자하 말하기를, 현자를 어질게 여기는 것을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꿀 정도로 하고, 부모를 섬기되 그 힘을 제대로 다해야 하며, 임금을 섬기되 자기 몸을 제대로 바쳐서 하고, 친구와 사귄 때 말함에 믿음이 있다면 비록 글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반드시 배웠다고 이르리라.
2. 賢賢易色: 현자를 어질게 여기는 것을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과 바꿀 정도로 한다는 것은 (여색을 좋아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진실로 좋아하는 것이다), 이것을 周公은 吐哺握髮 (홀륭한 사람이 오면 먹던 음식을 뱉고 감던 머리카락을 감싸고 마중 나간다) 이라 하였다, 현자를 어질게 여기는 마음이다. 哺는 먹이다 또는 음식물의 뜻. 反哺之孝 (까마귀새끼가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 烏兔飛走 (까마귀(-해-) 와 토끼 (-달-)가 날고 쫓는다: 세월이 빠르다)
3. 能竭其力: 그 힘을 제대로 (잘, 잘하다) 다해야 한다. 能은 제대로 잘 하다라는 조동사의 뜻. 能에는 잘 하다라는 본동사의 뜻도 있다. 中庸에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다른 사람이 한번에 그것을 잘하면 자기는 백 번까지라도 하고, 다른 사람이 열 번에 그것을 잘 하면 자기는 천 번까지라도 해라).

4. 致: 바치다, 이르다 (極致), 부르다, 그만두다 (致仕), 지극히 하다 格物致知 (사물의 이치를 추구하여 앎을 지극하게 한다). 格: 이르다
5. 矣 (의: 감탄어); 嗚呼老矣 是誰之愆 (오호노의 시수지건) 아~ 늙었네 이 누구의 허물인가

子曰 君子不重 不威 學則不固

1. 군자가 중후하지 못하면 위엄이 없으니, 배워도 견고하지 못하다. 중후해야 위엄이 있고 그래야만 배워도 배움이 견고해질 것이다.
2. 不重: 輕薄의 의미. 仁者樂山: 山은 중후하며 옮겨 다니지 않는다 (厚重不遷) 따라서 仁者는 重厚한 것을 즐긴다. 知(智)者樂水: 물은 사방으로 흐르며 막히지 않는다(周流無滯)-格物致知-智者는 사방으로 통하는 물을 좋아한다.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른다 (雲從龍 風從虎-易經)는 문장구조가 생각나는 구절이다.

主忠信

1. 사람은 忠信(성실하다는 의미로서)을 위주로 하고
2.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다 (無誠無物: 事 는 事理 物은 物理의 뜻으로 사리를 연구하는 인문학과 물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無友不如己者

1. 자기보다 못한 자를 친구로 사귀지 말라.



2. 그 이유는 자기보다 못한 자를 친구로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우두머리로만 되려는 성향이 생기고, 친구로부터 나쁜 점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3. 友는 벗하다라는 동사. A不如B는 A는 B만 못하다. 斜而有餘不如正而不足(사이유여 불여정이부족: 黔婁 (검루)가 죽었는데 천이 짧아 사체를 마름모꼴로 덮자 그 아내가 한 말이다. 비스듬하면서 여유 있는 것보다 반듯하면서 부족한 것이 낫다).

### 過則勿憚改

1. 잘못하였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
2. 過는 동사로 사용되었음. 잘 못하다.
3. 過而不改 是謂過矣: 과이불개 시위과의 잘못하였는데 고치지 않는다면 이 것을 잘못이라고 한다.

### 曾子曰 慎終追遠 民德歸厚矣

1. 증자 말하기를, 상을 잘 치르고 제사를 잘 지내면 백성들은 그것을 본받아 民德이 厚德해지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2. 慎終 (신, 삼가다. 장례를 삼가하여 치르고) -務本이라 할 수 있다
3. 追遠 (멀리 가신 분을 추모하다: 제사를 잘 지내다)
4. 人民: 人은 治者 民은 被治者.
5. 개인은 四禮 (冠婚喪祭禮)를 국가는 五禮 (吉凶賓軍嘉禮)를 행하였다. 冠禮는 성인식에 해당하고 祭禮는 吉禮와 같다. 嘉禮는 冠婚례와 같은 것이다.

6. 吉禮는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첫째 귀신의 도움을 기원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고인에 대한 추모이다. 凶禮는 국가적인 喪을 치루는 것이며, 賓禮는 외교의식이고 嘉禮는 왕실의 결혼, 책봉식, 즉위식 등을 할 때를 말한다.

子禽問於子貢曰 夫子至於是邦也 必聞其政 求之與 抑與之與

1. 자금이 자공에게 묻기를 공자께서는 이 나라에 도착하셔서, 반드시 그 정사를 들으니, 그것을 요구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라에서 주어서입니까?
2. 曰: 말하다 問曰 “ ”; 묻기를 “ ” 말하였다. 答曰 “ ”; 대답하기를 “ ” 라고 말하였다.
3. 聞: 소극적으로 듣다, 참여하다. 聽 (적극적으로 듣다 垂簾聽政 드리울 수, 발 렴, 들을 청, 정사 정.
4. 抑: 접속사로서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

子貢曰 夫子溫良恭儉讓以得之 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

1. 자공이 말하기를 부자는 온순하고 선하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겸양하므로 이것을 얻으신 것이니, 아마도 남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2. 之는 주어표시를 하기도 하고 대명사로서 사용되기도 하며 목적어가 도치되었을 때 사용되기도 한다. 夫子之(주어표시) 求之(대명사)也

3. 其諸: 아마도.

子曰 父在觀其志 父沒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1. 공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생전에는 자식의 뜻을 관찰하고 사후에는 자식의 행동을 관찰하니 사후 3년동안 아버지의 道 (방식)을 고침이 없어야 효라 이를 수 있다.
2. 見視觀看瞻瞰望(견시관간참감망-본다는 의미가 다 다르므로 구별을 잘 하여 해석해야 한다.)

有子曰 禮之用 和爲貴 先王之道 斯爲美 小大由之 有所不行 知和而和 不以禮節之 亦不可行也

1. 유자가 말하기를 體의 用은 和가 귀하니 선왕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그리하여 작은 일이나 큰일 모두 이것에서 유래하였다. 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和를 알고 和하기만 하고 예로서 그것을 매듭짓지 않으면, 이 또한 일이 행해질 수 없으리라.
2. 禮節의 體 (본질)는 嚴(엄할 엄)하지만 用(적용)은 和(온화할 화)함이 귀하다. 和는 從容(중용, 침착하고 차분하다 조용의 어원. 비슷한 어원으로서 스님은 僧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
3. 禮樂의 樂은 體가 和이고 用이 樂이다.
4. 爲는 be동사
5. 공손함이 지나치면 예가 아니다 過恭非禮
6. 禮者는 天理之節文이요 人事之儀則야라 和者는 從容不迫之義라 蓋禮之爲體雖嚴이나 然이나 皆出於自然之理라 故로 其爲用이 必

從容而不迫이라야 乃爲可貴니 先王之道 此其所以爲美하여 而小事大事無不由之也나라:

7. 禮는 貴賤 長幼등의 질서를 정하여 그 성질이 엄격 한 것일지라도, 모두 자연의 이치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이것을 행하는 경우에 중용하고 그러나 급박하지 말아야 하고 和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공자의 道가 되는 禮가 아름다운 이유이며, 천하 후세의 큰일이나 작은 일에 모두 이 禮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은 것은 없다. 이렇게 해도 행하여 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和를 알고 和를 구하여도, 禮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절제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예의 本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질서가 혼란스러워져 작은 일도 큰일도 행하여 질 수 없는 것이다.

有子曰 信近於義 言可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因不失其親 亦可宗也

1. 유자가 말하기를 약속이 義에 가까우면 그 약속한 말을 실천 할 수 있으며, 공손한 것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 하게 되며,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親人을 잃지 않으면 또한 주인 삼아 머물 수 있다.
2. 義(마땅히 해야 할 도리 (宜))
3. 其親:기친. 其는 올바른 제대로라는 뜻이 있다. 位得其人 직위에 (직책에) 제대로 된 사람을 얻었다) 死得其所 죽음이 올바른 장소를 얻었다.

子曰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1. 공자 말씀하시기를 먹는 데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일을 민첩하게 하고 말을 삼가며, 도가 있는 이를 찾아가서 그에게서 바로잡으면 이것을 학문을 좋아한다고 하리라.

2. 言之如其所行 (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과 같이 하라 慎於言), 行之如其所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 敏於事)
3. 慎 (삼갈신, 慎終如始-일을 시작과 같이 끝에서도 신중하게 한다). 就(찾아갈 취), 質正 (문거나 따져서 바로 잡음), 學問 (배운다) 과 學文(글을 읽는다)
4. 學而不思則罔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터들하는 것이 없다. 思而不學則殆: 생각만하고 배우지 않으면 바른길로 가지 못하고 위태로워진다.
5. 焉: 於之-正焉=正於之, 之也, 也, 何(어찌, 焉敢生心-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갖는가?)
6. 於: --에서 -에 의해서. 勞力者治於人 勞心者治人(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고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린다)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1. 자공이 말하기를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좋네, 그러나 가난하면서 그 가운데 즐기고, 부유하면서 예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못할 걸세.
2. 子貢은 가난하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후에 부유해진 사람으로 가

난과 부유함을 알고 있다. 또한 자공은 사람의 비교를 잘하였다.

3. 貧: 貝(부의 의미)를 分(나누다)하여 가난의 의미로 되었다. 보통 貧하면서 諂(아침 할 침)하게 된다. 安貧樂道, 즉 가난한 가운데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가난함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도를 즐긴다 이것이 군자의 도리다.

4. 富: 부유하면 소인은 驕 (喬는 높다, 크다라는 의미, 驕는 큰말로 교만함을 뜻한다)하고 군자는 부유하지만 예를 좋아한다 (好禮)

5. 未若 (--만 못하다, 不若과 같은 의미)

6. 술이편 15장에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반소사음수 곡굉이침지 낙역재기중의 불의이 부차귀 어아여부운)와 유사한 의미로 참고 할 것.

## 7. 문법

### A. 連詞 (접속사)

i. 명사를 연결: 與(여), 及(급) 미칠급, 및

ii. 형용사를 연결: 且(차; 重且大)

iii. 동사, 술어, 문장을 연결: 而 (그리고, 그러나)

## 8. 富(재산) 貴(지위)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1. 자공이 말하였다. 시경에 말하기를 "절단하여놓고 그것을 간듯 하며, 쪼아놓고 다시 간듯하다"라는 것은 이것을 (더욱 높은 경

지에 있음을) 말한 것이겠지요 (추측성이 아닌 검양).

2. 詩는 詩經을 말하고 書는 書經을 말한다. 유사하게 河는 黃河를 江은 揚子江를 말한다.
3. 磋(갈 차), 琢 (쥘 탁), 磨(갈마)
4. 其斯之謂與: 其一與는 검양의 표시로 -일 것이다라는 뜻. 之는 목적어를 도치시킬 때 사용 其謂斯與에서 목적어 斯를 도치시키기 위하여 之를 삽입하여 其斯之謂與로 되었다. 無恥之恥 無恥矣(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지게 된다)
5. 矣는 사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三點矣(了): 세시로 되었다 (更은 2시간단위 點은 更을 5개로 나눈시간단위)

子曰 賜也 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

1. 자공은 함께 시경을 말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앞의 것을 알려주니 다음 것도 아는구나.
2. 賜(사, 자공의 이름)
3. 與는 개사로 사용되어 동사 앞에 나오게 되었다, 함께 의 뜻
4. 諸(저는 어조사로 사용)
5. 往 (공자가 이미 말해준 것), 來 (말해줄 것 또는 말해주지 않은 것)
6. 자공은 聞一知二 (하나를 듣고 둘을 안다) 자공은 공자제자중 안회의 영리함을 보고 聞一知十이라하였다. 聞一無知가 되어서는 안되리라. 舉一隅 以三隅反 (하나의 모퉁이를 들어 보여 주

면 나머지 세 개를 돌이켜본다)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1.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한다.
2. 患(근심할 환) 之주어를 표시한다.
3. 남이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爲人之學을 하기보다는 자기완성을 위한 爲己知學을 해야 한다 .

後記

1. 學而篇이 끝났다.
2. 大學의 첫구절은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 明明德은 밝은덕(性善)을 밝게 한다(復其初-태어날 때의 깨끗한 성품을 회복한다)로서 修己를 뜻한다. 新民은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治人을 뜻한다. 止於至善은 至善 (최고의 선)에서(於) 그친다. 최고의 선 최고의 경지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계속 정진하여 최고의 경지를 추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3. 王之煥의 登觀雀樓[등관작루] 를 생각하며 더욱 정진해야 하겠다  
A. 白日依山盡[백일의산진] 하얀 해는 산에 기대어 (산을 따라서) 사라지고 黃河入海流[황하입해류] 황하는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欲窮千里目[욕궁천리목] 천 리까지 보는 시야를 다하려고 更上一層樓[갱상일층루] 다시 한 층의 누대를 오른다  
B. 更 (경-고치다 바뀌다-更張 (고치고 조이다), 갱-다시-更新,



## 更生

4. 百尺竿頭更進一步 길고 높은 장대 끝에서 다시 한발 나아가 정진한다.
5. 尙友 (상우) 위로 벗하다, 옛날사람들-공자, 맹자-와 벗하다.
6. 私淑 (사숙) 직접 배움을 얻을 수는 없으나 책이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향상되는 것. 淑은 착할 속